

건축사지 편집진으로 부터 '작품 NOTE' 란에 기고할 글을 부탁받았을 때 얼마전에 준공한 종합사회 복지관에 대한 글을 준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작품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별어려움 없이 진행되었고 애기거리가 별로 없어서 이 '작품노트' 란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사무실 개업초기에 재일교포 건축가와 같이 협동하여 설계를 진행하면서 가슴앓이를 많이 했던 작품에 대해 89년말경에 써 두었던 것을 끄집어 내어 보고자 한다.

남태령 마을의 돌집

Stone House in Namtaerye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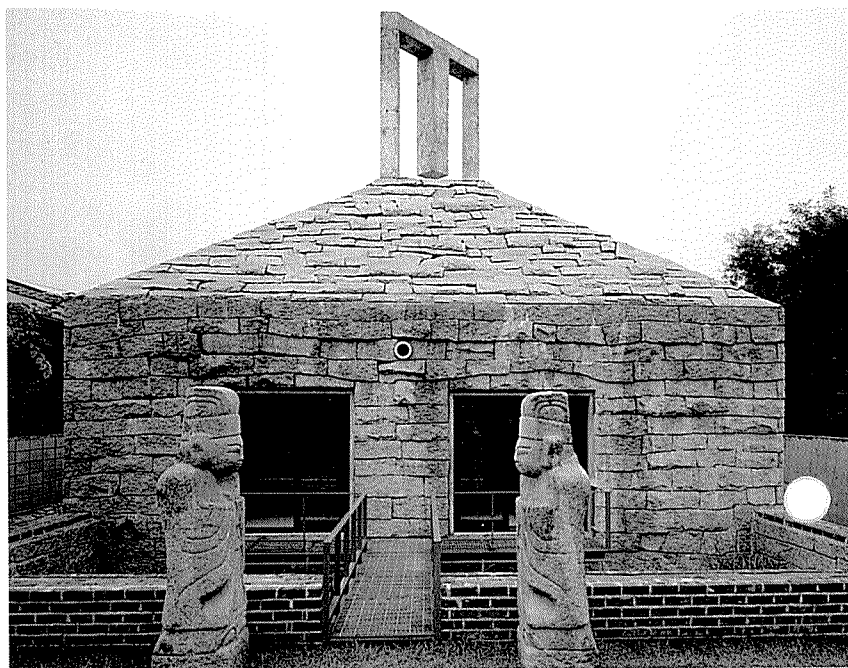
趙顯君 / (주)전인 종합건축사사무소
by Cho Hyun-Goon

「올 10월말경에 이 건물의 준공파티에 참가하였을 때 여러가지의 감정들이 뒤섞이면서 이 건물 공사에 관련되었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본인이 36년간 살아오면서 만났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을 1년반 동안 접하면서 갈등과 오해, 우정과 성취감을 동시에 맛보았던 것 같다. 건축가와 시공자, 시공자와 하도급업자, 한국인과 재일교포, 재일교포와 일본인, 한국인과 일본인 등 여러부류의 인간관

계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들이 이 조그만 60여평밖에 안되는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부단히 발생하였으니, 이에 관련되었던 사람들의 마음 고생이 얼마나 컸음일런지…….

이 일의 시작은 1988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전해 재일교포 현대미술작가인 박인식 선생의 아뜨리에 설계로 재일교포 건축가인 Itami Jun 선생을 만나게 된것이 인연이 되어, 방배동 남태령 마을의 바로 옆땅에 그분의 건축설계 스튜디오를 짓기 위한 설계를 함께 진행하게 되었다.



물론, 일본에서 계획설계를 직접해오고, 한국에서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여 허가를 득하고 공사감리를 맡는 일이었다. 일본에서 가져온 5~6장의 계획도면을 가지고 1개월간의 보완작업을 하였는데, 기본 계획상의 개념을 살리면서 취약구조 개선지구의 지침사항에 맞추는게 상당히 힘든 일이었다. 처음 건물외관은 피라미트 형태의 사각뿔이 땅속에서 솟아오른 형태였으며 외벽 및 지붕재료는 전부 검정 전벽돌이었다(인접한 광선생 아파트의 외벽 및 지붕 재료도 검정 전벽돌이었음). 시공자는 광선생 아파트를 공사하던 사람을 지정하였고, 공사는 3월 말경에 착공하였는데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표상의 준공 일자는 88년 9월 중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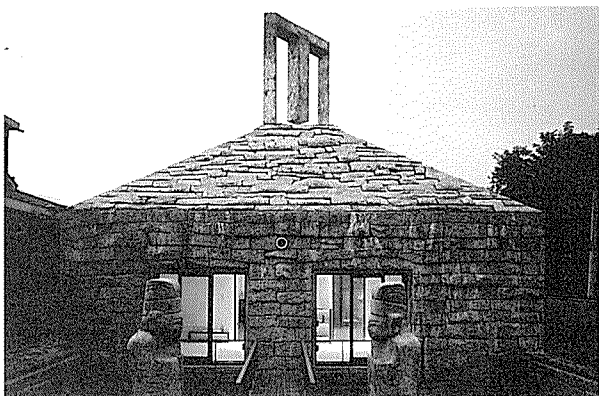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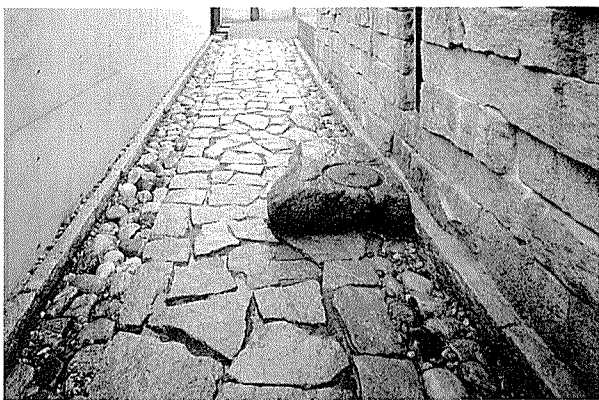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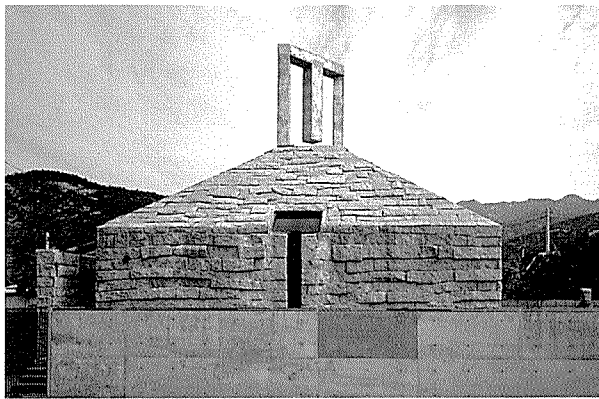
처음 2~3개월간은 진행이 잘 되다가, 외벽 및 지붕재료가 자연석(석재공장에서 가공후 남은 못쓰는 자투리 돌을 가리킴)으로 바뀜으로 해서 공정이 약간 지체되기 시작했다. 옆집에서 사용해본 전벽돌에서 하자요인이 많이 발생하였고, 돌을 사용하는 것이 처음 건축개념을 살리는데 더 좋겠다는 생각에서 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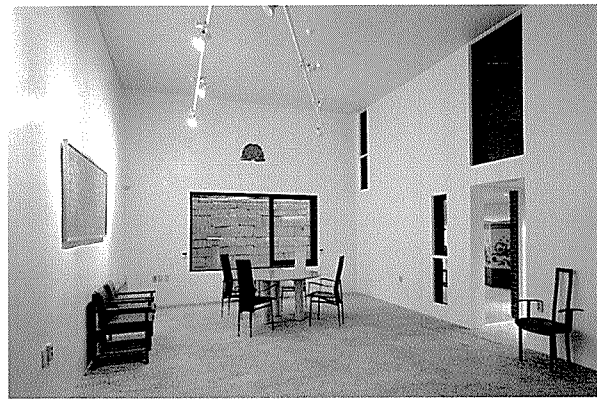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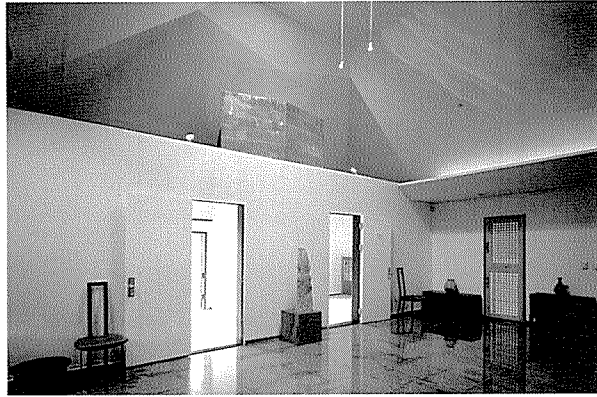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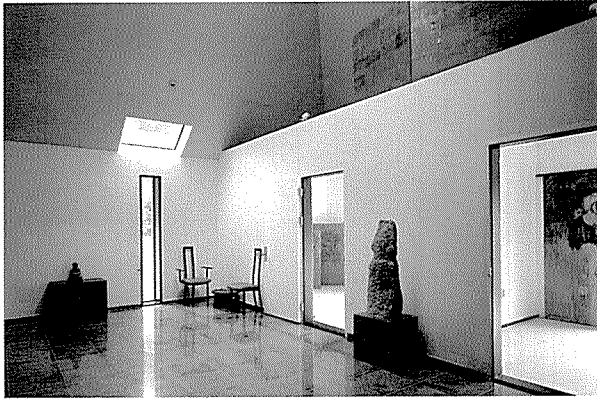
준공이 다 된 지금에야 설계변경을 잘했다는 생각이지만, 문제의 발단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돌 시공 전문업자가 들어오면서 기존의 현장 소장과 업무상의 마찰을 빚기 시작하였고, 그해 여름의 건축자재 품귀현상, 그리고 일부 변경사항과 그에 따른 정산문제로 공기가 뒤로 한정없이 밀리기 시작한 것이다.

우여곡절끝에 88년 11월경에 거의 큰 공정은 마무리를 보았는데, 이때 우려하였던 외벽 방수에 하자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방수공정은 기존 시공업자의 업무소관이었지만 돌 작업중 경사 지붕의 방수층이 손상되었을 우려를 배제할 수 없었다.

그 방수층도 액체방수 2차에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2~3회 칠한 정도였으며 그 위에서 보완조치없이 돌 붙이는 작업을 했으므로 시공자나 건축가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할 입장이었다. 몇 번의 가솔비 후의 낭패를 겪고 난 뒤 결국은 방수 전문업자에게 별도 계약에 의하여 방수 보완작업을 시켰는데, 여러가지 방법중 외벽·지붕의 돌을 건어낸 후 다시 방수공사를 하는 것은 너무 비용과 기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돌과 돌사이의 틈을 모두 방수처리 함으로써 어느정도 방수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런 와중에서 시공업자는 마무리를 다 짓지 못하고 물러나야 했고 나머지 잔여 작업은 뒤늦게 이 일에 뛰어든 건축주측의 한국인 Staff이 맡아하게 되었으며 10여개월이 더 흘러서야 공식적인 준공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시공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 가장 문제가 되었던 점은, 일본에서도 상당히 알려져 있는 재일교포 건축가인 건축주가, 한국에 자기 설계사무소 건물을 작품으로 남기겠다는 생각을 여러가지 이유로 시공자가 따라와 주지 못했다는 점이다. 물론, 거기에서 일본과 한국의 소규모 건물에 대한 시공의 질의 차이, 공사비문제, 어느정도 예상된 설계변경 등 피치못할 이유가 있었겠지만, 시공자 나름대로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벌어진 틈을 메꾸지 못했다는 점이다. 일본 건설현장에서 늘 보아왔던 엄격한 시공기준에 비하여 너무 엉성하게 진행되는 한국의 공사현장 상황이 건축주 입장에서는 늘 불만이었고, 일반적인 건물로 생각하고 한번 해보겠다고 덤벼들었던 시공자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리고, 훌륭한 건축작품이 만들어 질려면 여러분야의 자문이 필요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서로간의 의사전달이 원활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에는 오히려 건축가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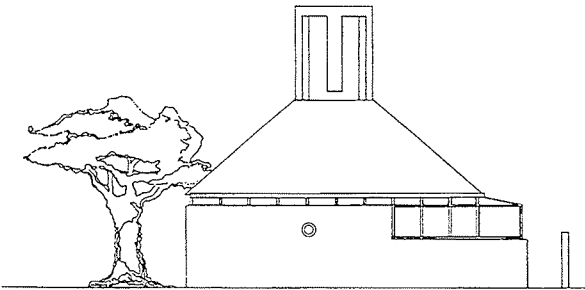
이 현장에도 기술적인 공사자문과 제 3자 입장에서의 조언자 등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개진되면서 때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때로는 엉뚱하게 일이 진행되곤 하였다. 이런 가운데에서 '건축가인 건축주'와 '평범한 시공자' 사이에서 중간 입장에 서야했던 본인으로서는 능력부족을 느끼며 낭패했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어디까지나 한국측 건축가로서 서로 협력하여 작품을 만들어보자는 전제조건에서, 사소한 문제까지 건축주측과 협의하여 그 결정 사항을 시공자에게 전달하면서 공사감리를 진행했지만, 방수문제를 위시한 하자가 발생했을때는 그 문제의 상당 부분은 본인이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었다. 그런저런 연유로 준공전 마지막 몇 달간은 현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고 후임 현장 담당자를 지원해주는 입장에서 공사를 마치게 되었다.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이 건물은 지어졌다. 아직 방수, 결로 등 약간의 보완해야 할 사항이 남아 있긴 하지만 초기의 건축개념을 거의 살리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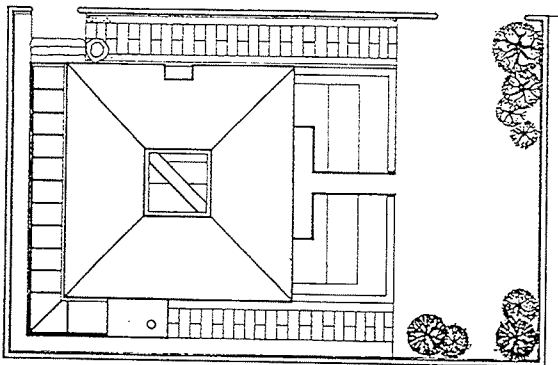
언젠가 Itami Jun 선생이 '어느것도 모방하지 않고 지구상에 오직 하나뿐인 자기만이 생각해 낼 수 있는 독창적인 형태의 건물을 짓자' 던 얘기가 생각난다. 과연 그런 건물이 되었는지는 제 3자가 평가할 문제이지만, 평범하지 않고 개성이 강한 건물이 되었다는 점에서는 여러 한국건축가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 건물의 상부에 놓여 있는 조각품처럼, 언젠가 우리의 건축활동이 혼탁한 세상에서 하늘에 들리워 올라가는 손잡이(이 건물 상부에 일본의 유명한 조각가의 작품이 놓여 있는데, 그 형태는 흙속에 묻힌 피라미트가 하늘에 들리워 올라가는 손잡이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함)의 역할까지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 건물이 지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몇자 적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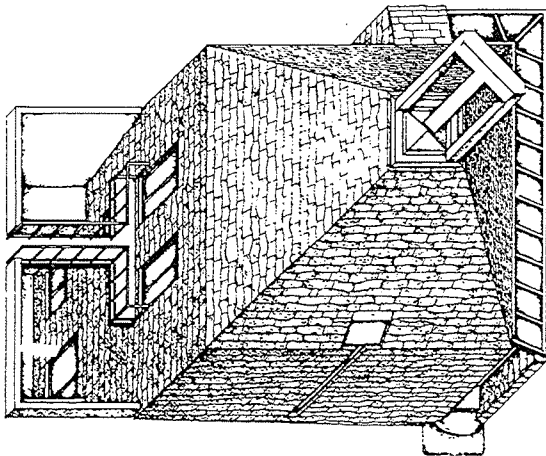
5년 이상 지난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감회가 새롭고 그 어려웠던 시절이 아련한 추억으로 떠오른곤 한다. 현재 남태령마을의 '돌집'으로 알려져 있는 이 건물은 여러사람의 관리를 거쳐서 지금은 건축주의 친척되는 분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바라건대, 건축가를 위한 아뜰리에로 쓰고자 하는 건물의 원래 취지를 살려서 이 '돌집'을 중심으로 하여 그분의 한국에서의 활발한 건축활동이 전개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입면도



배치도



엑소노메트릭

